지역 메아리

고창 구시포 해변축제 성료

넓고 완만한 해변과 해송숲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사랑받고 있는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이 흥겨운 축제 분위기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2018 고창 구시포 해변축제'를 구시포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

구시포상가번영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27일 오후 팝페라 공연, 밸리댄스 공연에 이어 현숙,서지오,현진우,레이디티,한철,김옥경 등 초대가수의 공연과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관광객과 군민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 분위기를 제공했다.

군은 행사당일 해수욕장 상가 구간은 교통을 통제하고 주요지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군 관계자는"갯벌과 바다, 그리고 노을이 아름다운 구시포 해수욕장에서 환상적인 낙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여름 밤의 축제가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진섭 시장, 무더위 쉼터 방문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유진섭 시장이 지난 27일 지역 내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고 있는 연지동 동부경로당을 방문했다.

폭염 등 생활에 불리한 기상여건이 이어지자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불편 챙기기에 직접 나선 것. 이날 유 시장은 경로당을 방문해 냉방기기 작동 여부와 무더위 쉼터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듣는 등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미리 준비해간 시원한 수박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당부했다.

유 시장은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낮 2시부터 5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함은 물론 수시로 물을 섭취하고,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세심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현재 시는 경로당과 공공기관 321개소를 무더위 쉼터 지정 운영 중으로, 앞으로 8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더위에 지친 어르신과 주민들의 탈수 예방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 시장은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무더운 날씨에 시민과 어르신들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고 세밀하게 챙기겠다"며 "무더위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여가 공간뿐만 아니라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계속되는 폭염 꽃과 나무도 힘들다"

정읍시, 폭염에 지친 도로변 화단 · 가로수 물주기 '한창'

계속되는 폭염으로 힘든 건 사람만이 아니다. 도로변 화단의 꽃과 나무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도시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시내 곳곳 가로수와 화분들이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읍시가 민첩한 급수작전으로 이들 가로수와 꽃들에 생기를 불어 넣고 있다.

시는 "최근 20여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데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화단 등의 꽃과 주요 도로변 가로수 물주기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후에도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물주기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들어 산불 진화차와 꽃식재차, 녹지관리차 등 총 4대(12명)를 동원하여 매일 30여톤을 급수하고 있다. 또 정읍천 자전거도로 단풍경관림의 경우 지난 2015년 설치된 점적관수 시설을 이용, 효율적인 급수작업으로 가로수가 푸름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집중관리지역인 최근 2년 이내 심은 나무에는 물주머니를 달아 공급 중이기도 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민첩한 급수작전으로 가로수와 꽃들에 생기를 불어 넣고 있다.

고창군, '하반기 전북트래블마트' 참가

여행업체와 밀착 상담 고창관광상품 적극 홍보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전북트래블마트'에 참가해 국내 주요여행사와 국제청년관광서포터즈를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고창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했다.

지난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선유8경 국제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열린 '2018 하반기 전북트래블마트'에 참가한 고창군은 도내 시·군 관광관련 업체와 홍보 관계자들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비즈니스 상담을 통한 상품개발, 각 시군의 미션 수행을 통한 SNS 홍보 참여와 자율적인 홍보마케팅 장으로 체험관과 이벤트관을 운영했으며 인근지역 간 상생을 위한 공동협력 마케팅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군은 이날 관광관련 업체와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201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다양한 역사, 문화, 예술, 생태환경 자원을 중심으로 관광 상품을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에 3년 연속 선정돼 오는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고창의 대표축제인 '고창모양성제'를 알리는데 힘썼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프로그램들을 알리고 지역관광산업을 더욱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365일 방문하고 싶은 고창, 품격 있는 고창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폭염 가축 피해 예방 '총력'

1억5000만원 투입 환풍기 등 지원… 가축 관리 요령 등도 집중 홍보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제빙기와 환풍기 등을 지원하고 폭염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 축산농가에 신속하고 정확한 폭염 상황을 알리는 한편 폭염에 따른 폐사 가축 처리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사 통풍과 물 뿌리기를 통해 복사열을 방지하고 전기장치가 과열돼 화재 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 등 축사 시설과 가축 사양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축사 내 정전이 발생할 경우 환풍시설 가동이 중단돼 온도가 높아지고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져 가축이 폐사될 수 있다. 따라서 비상 발전기 등 단전에 대비한 만반의 대책이 필요하고 지붕 위에 물을 뿌리거나 환풍기 등으로 강제통풍을 하는 등 축사시설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시 관계자는 "여름철 기온이 높게 올라가고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은 식욕과 성장이 떨어지고 질병이 발생하기 쉽고, 심할 경우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아직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해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이달 26일 현재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상황은 닭 54건, 오리 5건, 돼지 31건, 메추리 1건을 포함 총 14만6,319두(추정 보험금 6억2,800만원)로 집계됐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방학을 맞은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28일까지 2일 간 센터 교육장에서 진로직업체험을 가졌다,

미래의 집 Smart House 미리 만나요

부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차 산업혁명 진로 체험

부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형원)는 방학을 맞은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28일까지 2일 간 센터 교육장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무엇을 배우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진로직업체험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소프트웨어 코딩, 사물인터넷 IOT, 가상(AR)/증강(VR), 3D 프린팅을 체험하며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트렌드와 미래기술을 만나보고 앞으로 변화할 직업세계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체험을 하면서 미래기술에 호기심이 많이 생겼고 특히 '미래의 집(Smart House)'을 체험하는 사물인터넷 IOT 시간이 제일 재미있었다"며 "내가 앞으로 살아갈 집을 상상해보는 흥미로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이 미래직업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미래를 적극 준비해 부안군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동안 다문화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스스로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비전캠프, 진로탐색, 진로현장체험, 학부모 내면의 성장을 통해 진로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5일간 일정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제235회 임시회를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마쳤다.

2차 본회의에서 박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색있는 도시공원 조성 관광자원화 시책으로 ▲충무공원을 사계절 야생화 꽃길과 꽃단지로 조성 ▲동초등학교에서 구룡동으로 넘어가는 구)국도1호선 말고개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조성 ▲말고개 주상절리형 인공폭포를 리모델링하여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 시설을 조성하여 도시공원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주장했다.

안건심사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에서는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등 4건은 원안가결하고 정읍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복형)소관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제23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